

주간 충현

언약을 붙들고 이웃과 세상 속으로

예배와 선교

“하나님이여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

(시 67:3)



다음 주일, 제 4차 성찬식

일시: 5월 7일(다음 주일), 1~3부 예배시 장소: 본당

* 성결한 삶과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회 제 60회 전국 목사 장로 기도회

일시: 5월 8일(월) ~ 5월 10일(수)

장소: 충현교회 본당

전체 강의4: 강사 한규삼 목사

- 5월 9일(화) 오후 2~3시 본당

오늘, 제 1차 학습, 입교, 세례식

일시: 4월 30일(오늘) 찬양예배시

2023년 제1회 CMTC 훈련 2차

일시: 2023년 4월 30일(오늘) 16:30~18:30

장소: 갈릴리홀

교회 설립 70주년 기념 독서감상문, 글짓기 및 그림 그리기 대회

일시: 2023년 5월 6일(토) 10:00~14:00

장소: 충현교회 곳곳

접수기간: 4월 30일(오늘)까지

* 자세한 사항은 7면 참조

로마서 강해(1~3장)

교회 설립 70주년을 맞이하여 금요집회 시리즈 설교로 로마서 강해(1-3장) 학점제를 진행합니다. 복음의 진수를 담고 있는 로마서 강해에 많은 성도님들이 참여하셔서 복음의 감격을 회복하는 은혜 있으시길 기대합니다.

5월 5일(금)	로마서 강해(10) / 롬 3:23-26
5월 12일(금)	로마서 강해(11) / 롬 3:27-31

전도훈련(기본교육)

일시: 5월 6일(토) 10:00~12:00

장소: 베다니홀 주관: 전도 위원회

대상: 동역교회 전도지원 참여자 및 희망자

존 파이퍼는 그의 책 ‘열방을 향해 가라’에서 선교와 예배와의 관계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선교는 교회의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다. 예배가 그 목표다. 예배가 없기 때문에 선교가 필요한 것이다. 예배는 선교의 연료요, 목표다. 선교는 열방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고 기뻐하게 하는 것이다. 선교는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끝난다.” 우리가 선교를 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믿고 예배하는 하나님이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 가운데 동일하게 살아계시고, 우리의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배와 선교는 하나입니다. 신령한 예배는 선교를 향해 나아가게 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예배가 선교의 연료가 되어지는 복된 은혜를 소망합니다.

2023 전교인 성경통독 리딩지저스 교재 배부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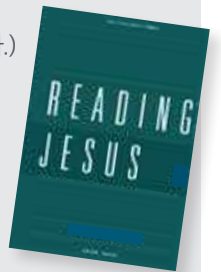
리딩지저스 3,4권을 배부합니다.(2023년 구입하신 분만 수령하시면 됩니다.)

배부일정: 4월 30일(오늘)

배부장소: 선교관1층 교구 간사실 및 각 교구모임 장소

문의: 최병일 안수집사(010-7534-2952)

* 각 부서는 담당 교역자를 통해 수령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제 1차 유아세례식 및 교육 안내

유아세례교육: 5월 14일(주일) ~ 6월 4일(주일) 총 4주간

유아세례식: 6월 11일(주일), 찬양예배 시 진행

신청 대상: 만 2세 이하의 자녀를 둔 세례교인 부모

신청 기한: 5월 14일(주일)까지

신청 방법: 온라인으로 신청서 제출 (큐알코드)

문의: 박요셉 목사 (010-2516-7414)



날짜	시간	교육 내용	담당	장소
5월 14일	14:00~15:00	유아세례의 성경적 의미	박요셉 목사	제1교육관 302호
5월 21일	14:00~15:00	하나님의 언약과 유아세례	박요셉 목사	
5월 28일	14:00~15:00	주의 사랑으로 자녀를 양육하라	박요셉 목사	
6월 4일	14:00~15:00	믿음의 가정을 세워라	박요셉 목사	
		문답	해당교구 & 부서	
6월 11일	주일찬양예배	유아세례식(14:50까지 본당 입실)		본당

내 아들이 성전을 건축하게 하소서

(역대상 29:17-19)



누군가 죽을 때의 모습이 빛난다면, 그 인생은 매우 복된 인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창 25:8)” 아브라함의 죽음에 대하여 성경은 ‘열조에게 돌아갔다’고 표현합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백이십 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신 34:7)” 모세의 죽음은 마치 하나님께서 옮겨 주시는 것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창 49:33)” 아브라함과 모세 사이의 위대한 믿음의 사람, 야곱은 아브라함보다 더 험난한 인생을 살았지만, 아브라함보다 더 편안한 죽음을 맞이하였습니다. 역대상 마지막 부분에 기록된 다윗의 죽음을 살펴보면, 다윗은 앞서 살펴본 믿음의 위인들보다도 훌륭한 죽음을 맞이하였습니다.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으매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대상 29:28)” 나이가 들어서 부를 누릴 수 있음은 세상적 기준에서도 축복입니다. 다윗은 거기에 더하여 존귀도 누렸습니다. 무엇보다 다윗에게는 자신의 뒤를 이어줄 최고의 후계자도 있었습니다. 성경은 다윗이 이토록 축복받은 이유에 대하여 ‘성전 건축에 마음을 다했기 때문’이라 설명합니다. ‘성전’은 구약과 신약의 맥을 이루는 중요한 주제 중 하나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자,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이며,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에덴동산은 물론 출애굽 시절의 광야 성막도 모두 성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전을 지으라는 명령은 눈에 보이는 성전 뿐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을 지으라는 명령이기도 합니다.

역대상에 기록된 다윗과 성전

역대기는 구약성경 중 가장 늦게 기록되었으리라 추정됩니다. 북쪽의 이스라엘 왕국이 앗수르에 멸망한 후, 남쪽의 유다왕국도 B.C. 586년에 멸망했습니다. 솔로몬 때 건축되었던 성전도 파괴되었습니다.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향에 돌아가 성전을 다시 세워, 그곳에서 예배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예루살렘에 돌아와 성전까지 짓게 되었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은 그다지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역대기는 바로 이 무렵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성전 지을 때의 마음을 기억하라, 성전이 없을 때의 다짐을 기억하라’고 일깨워주는 성경이었습니다. 역대상에는 다윗의 이야기가 많이 등장합니다.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네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음과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며 (대상 17:13)”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겠다는 다윗의 결심에,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며 다윗을 위하여 영원한 집을 짓겠다는 언약을 맺어주셨습니다. 다윗의 집이 영원하리라는 언약은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은 관계를 끊지 않으시겠다는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보라 한 아들이 네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안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대상 22:9-10)” 역대기는 다윗의 뜻을 이어 성전을 건축할 아들이 솔로몬임을 밝혀줍니다.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와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대 나에게 알려 주셨느니라 (대상 28:19)” 솔로몬이 건축할 성전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알려주신 설계도대로 지어졌습니다. 성전 건축을 위한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의 준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점은 솔로몬에게 전달된 성전의 설계도가 하나님께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

시옵소서 (대상 29:10)” 다윗은 하나님께 ‘준비하게 해주시고, 꿈꾸게 해주심에’ 감사기도를 올렸습니다. 다윗의 계획과 준비가 솔로몬에게 이어졌듯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모시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성전은 시대마다, 세대마다 그리고 각 사람마다 이루어져야함을 우리는 기억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지을 성전

다윗의 감사기도에는 그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이 담겨있습니다. 본문 17절은 이를 ‘정직한 마음으로 즐거이 자원하여 드릴 수 있음에 기쁘다’라고 표현합니다. 19절은, ‘아들 솔로몬이 정성된 마음으로 성전을 지을 것’이라 설명합니다. 우리도 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 안에 지어야 합니다. 참 성전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사십육 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삼 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요 2:19-21)”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참 성전을 짓는 방법이며, 우리가 지어야 할 성전도 예수님의 부활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바로 우리가 성전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 안에 건축하는 성전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온전히 거하도록 하는 삶이며, 예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전 3:16)”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를 더럽히면 아니됨을 알아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전 6:19)” 우리의 몸이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임을 알아야 한다고 성경은 다시 강조합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엡 2:21)” 성전은 세상 속으로 펼쳐져야 합니다. 다윗과 솔로몬의 삶이 성전으로 이어졌듯, 한 세대에서 다음세대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어져야 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영감해주신 설계도가 참 궁금합니다. 히브리어 성경에는 ‘타브닛’이라 기록되었는데, 영어성경에는 계획(Plan), 패턴(Pattern), 이미지(Image) 등으로 번역됩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설계도를 보여주시는 순간, 건축에 문외한인 다윗조차도 훤히 볼 수 있을 정도였으리라 생각합니다. 옷을 만들 때 패턴(Pattern)이 있으면 똑같이 만들 수 있듯, 영감된 설계도를 보는 순간 솔로몬도 동일하게 훤히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설계도처럼, 영감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 성경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선명하게 보여주고, 예수님의 길을 정확하게 가르쳐주며,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사역에 대하여 말씀해줍니다. 우리의 삶을 성전으로 지을 설계도가 바로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보여주신 성전의 설계도를 가리키는 단어는 모세가 성막을 지을 때 알려주신 설계도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요소, 속죄소(11절)와 언약궤(18절)의 설계는 우리의 죄를 해결하는 방법이며,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방법입니다. 성경이 영감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바입니다. 우리 모두의 인생에서 삶으로 성전을 지어가십시오.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곳,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성전을 우리 삶으로 이어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Sermon in English Translation

Have My Son Build the Temple

(1 Chronicle 29:17-19)

Rev. Kyu Sam Han

If the image of someone who is at death shines, the one's life can be said very blessed. "Then Abraham breathed his last and died at a good old age, an old man and full of years; and he was gathered to his people." (Gen 25:8). The Bible expressed the death of Abraham as 'he was gathered to his people'. "Moses was one hundred and twenty years old when he died. His eyes were not dim nor his natural vigor diminished." (Deut 34:7). Moses' death was just like the image that God transfers him. "When Jacob had finished giving instructions to his sons, he drew his feet up into the bed, breathed his last and was gathered to his people." (Gen 49:33). The great man of faith between Abraham and Moses lived the more evil life than Abraham, but he faced a more peaceful death than Abraham. Examined the death of David recorded in the last part of 1Chronicles, David faced a much more splendid death than the great people mentioned before. "He died at a good old age, having enjoyed long life, wealth and honor. His son Solomon succeeded him as king." (1Chr 29:28). To enjoy wealth at an old age is a blessing even by the world standards. In addition to that, David enjoyed honor. Above all, David had a best successor who succeeds him. The Bible explains the reason that David was blessed like this was because David 'devoted all his heart to building the temple'. The 'temple' is one of the important themes which make a connection between the Old Testament and the New Testament. It's because the temple is the place where God is as well as the place where we meet God and where God reigns. The Garden of Eden as well as the tabernacle in the wilderness in the period of Exodus are all called the temple. Therefore, the command to build a temple is also a command to build not only a visible temple, but also an invisible temple.

David and the temple in 1 Chronicles

Chronicles is estimated to be written latest among the books of the Old Testament. After the kingdom of Northern Israel was collapsed by Assyria, the kingdom of Judah was also destroyed in B.C. 586. The temple constructed in the period of Solomon was also destroyed. The Israelites who had been taken captive to Babylon had cried out to God to make them return to their hometown and reconstruct the temple so that they could have worshipped there. However, though they came back to Jerusalem and even built the temple owing to the grace of God, the faith of the Israelites was not much restored. Chronicles was just the reminder of the Bible that awakened the Israelites at this period to 'remember the heart when you build the temple and remember the pledge when you don't have the temple'. There appear lots of David's stories in 1 Chronicles. "I will be his father, and he shall be my son: and I will not take my mercy away from him, as I took it from him that was before thee." (1Chr17:13). God was pleased with David's resolution for building the temple for God and made a covenant that He would build a permanent house for David. The covenant that David's house will be permanent is a covenant that is also given to us. It is because God made with us a covenant that He would not sever the promise He made with us. "But you will have a son who will be a man of peace and rest, and I will give him rest from all his enemies on every side. His name will be Solomon, and I will grant Israel peace and quiet during his reign. He is the one who will build a house for my Name. He will be my son, and I will be his father. And I will establish the throne of his kingdom over Israel forever." (1Chr 22:9-10). Chronicles illuminates following the will of David, his son Solomon will build the temple. "All this," David said, "I have in writing as a result of the Lord's hand on me, and he enabled me to understand all the details of the plan." (1Chr 28:19). The temple for Solomon to build was built according to the blueprint God taught David. The preparation for building the temple such as human and material resources is important, but what is more important is that the blueprint of the temple delivered to Solomon had been received from God. "David praised the Lord

in the presence of the whole assembly, saying, "Praise be to you, Lord, the God of our father Israel, from everlasting to everlasting." (Chr29:10). David prayed to God for having let him 'prepare and dream'. We must remember, just as David's plan and preparation was succeeded by Solomon, the temple where we meet and attend God and the ruling of God is fulfilled should be accomplished by each period, each generation, and each person.

The temple we will build

David's thanksgiving prayer contains his heart to offer his whole life to God. Verse 17 of the text expresses this 'I am pleased with that I have given willingly and with honest intent'. Verse 19 explains 'his son Solomon will build the temple with the wholehearted devotion'. With this heart, we should build the temple of God within us. It's because the true temple is Jesus. "Jesus answered them, "Destroy this temple, and I will raise it again in three days." They replied, "It has taken forty-six years to build this temple, and you are going to raise it in three days?" But the temple he had spoken of was his body." (John 2:19-21). Through Jesus God reigns, and through Jesus we meet God. Death and resurrection of Jesus is the way how we build a true temple, and the true temple we should build must be founded on Jesus' resurrection. If Jesus is within us, we immediately become a temple. Therefore, the meaning of building a temple within us can be said the life of making Jesus dwell perfectly within us, and also the life of following the will of Jesus. "Don't you know that you yourselves are God's temple and that God's Spirit dwells in your midst?" (1Cor 3:16). The Bible says we should know since we are temples, we should not defile our bodies. "Do you not know that your bodies are temples of the Holy Spirit, who is in you, whom you have received from God? You are not your own;" (1Cor 6:19). The Bible emphasizes again that we should know our bodies are temples where the Holy Spirit dwells. "In him the whole building is joined together and rises to become a holy temple in the Lord." The temple should be spread out into the world. Just as the lives of David and Solomon led to the temple, God's reign should continue from one generation to the next.

I am very curious about the blueprint God inspired David. It is written in Hebrew Bible as 'tavnit', but it is translated into 'Plan, Pattern, or Image', etc. in English Bible. I think that the moment God showed the blueprint to David, even David, who was unfamiliar with architecture, was likely to see it clearly. Just as we can make same clothes with a pattern when making clothes, the moment Solomon saw the inspired blueprint, Solomon equally would have been able to see it clearly. Just like the blueprint God gave to David, the gift that was given to us by God's inspiration is the Bible. The Bible clearly shows what the will of God is, definitely teaches the path of Jesus, and talks about how the Holy Spirit works together. The blueprint which builds our lives into the temple is the very Bible. The word referring to the blueprint God showed David is the same as referring to the blueprint that God had let Moses know when he had built the Tabernacle. The design of Atonement Cover(v.11) and Ark of the Covenant(v.18), the two most important elements in the temple, is the way of solving our sins and leading us to salvation. That's what the Bible teaches us by inspiration. Let's all build a temple by living our lives. I bless in the name of the Lord that we all would enjoy the blessed lives in which we build a temple where God dwells, where God meets us, and where God reigns.

교회설립 70주년 기념 선교대회 스케치

충현교회 설립 70주년을 기념하여 언약을 붙들고 이웃과 세계 열방으로 향하기 위해서, 현지인 사역자 6개국 10분을 초청하여 지난 4월 13일 사역자 환영 감사예배를 시작으로 16일 선교주일, 그리고 19일 사역자 환송예배에 이르기까지 풍성한 은혜 가운데 선교대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선교대회에 함께 동참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70주년 기념 선교대회를 통해서 우리 충현교회가 열방을 향해 뻗어 나가고 한층 더 성숙하게 선교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속적으로 열방에 나가 선교하고 계신 선교사님들과 선교지 협력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일 목요일 저녁 - 사역자 환영 감사예배

카페드림에서 6개국(몽골/베트남/인도네시아/몰도바/미국/A국)에서 사역하시는 현지인 사역자 10명과 함께 환영감사예배를 드리고, 한분 한분 이분들을 소개하는 시간과 환영만찬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더불어 목사안수를 받으신 몽골의 라우단다쉬, 군친이시 목사님과 베트남의 웅 목사님에게 축하의 선물을 전달했습니다.



15일 토요일 오전 - 국가별 기도회

각 국가별 기도모임으로 약 200여명의 성도들이 각 국가별 장소에서 사역자의 말씀과 이들의 사역에 대해서 자세하게 듣고 이를 위해 모두가 함께 기도하는 은혜로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15일 토요일 오후 - 양화진 선교사 묘원 방문

흑암의 땅이었던 조선을 향해 복음을 전하고 헌신한 선교사들의 묘원을 방문하여 이들의 사역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현지인 사역자들에게 도전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16일 선교주일

본당 앞마당에는 윈드오케스트라의 찬양연주가 울려 퍼지면서, 각 국가별 부스 운영을 통해 사역자와 충현의 성도님들의 만남과 교제가 이루어졌습니다. 각 국가별 사역현황과 기도제목 카드를 통해 성도님들이 현지의 사역에 더욱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으며, 교회학교 아이들이 선교에 관심을 갖기 위해 메타버스 충현교회 및 각 국가별 사역지에 대한 가상공간 체험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내게 맞는 선교지 찾기 MBTI를 통해 선교지를 추천받았습니다. 또한 현지인 사역자들이 교구 및 부서에 방문하여 말씀을 전하고 사역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오후 찬양예배시간에는 특별 찬양예배로 교회학교와 차세대위원회, 선교위원회가 한마음으로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으며, 현지인 사역자의 간증과 말씀을 통해 많은 성도님들이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외선부 의료진료를 통해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무상진료하며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17일 월요일 - 성경전래지, 아펜젤러 순직기념관 방문

현지인 사역자들과 선교위원들이 우리나라 최초의 성경 전래지 및 아펜젤러 순직기념관을 방문하여 하나님의 섭리하심 가운데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전해졌는지를 알게 되었고, 현지인 사역자들과 교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18일 화요일 - 전주 신흥학교 방문

레이놀즈 선교사가 세운 신흥학교를 방문하여 호남선교와 교육이념 등을 소개받고 사역자들이 사역지에 돌아가서 다음 미래세대 양육에 대한 도전을 받았습니다. 오후에는 한국의 전통음식인 비빔밥을 맛보고 한옥마을에서 한국의 문화 등을 체험하는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19일 수요일 - 사역자 환송예배

현지인 사역자의 말씀을 듣고, 이들의 사역을 위해 교회가 노트북을 한 대씩 선물했으며, 온 성도님들이 기도와 정성으로 헌금 해주신 선교지명헌금을 전달하고 이들의 발걸음을 축복하며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14일 금요일 오전 - 선교특강

한규삼 담임목사님께서 특강으로 현지인 사역자들에게 바울의 1차 전도여행을 배경으로 선교와 돈에 대해서 어떻게 사역할 것인지에 대해 강의해주셨고 사역자들에게 도전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14일 금요일 오후 - 선교위원회 간담회

선교위원회 일꾼들과 함께 이들의 현재 사역과 앞으로의 사역 비전, 그리고 총현교회가 함께 동역해야 할 부분들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14일 금요일 저녁 - 금요일집회

10명의 현지인 사역자들을 소개하고 이들을 환영하는 특별 찬양과 현지인 사역자의 말씀을 듣고, 사역자들과 이들의 사역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은혜로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현지인 선교사님들의 편지

안녕하십니까!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사역자들이 이 자리에 와서 모두가 알게 된 것은 특별히 담임 목사님, 그리고 총현교회 성도님들이 저희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있는지였습니다. 총현교회 성도님들의 뜨거운 기도와 저희를 향한 헌신과 수고와 중보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저희들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아름답고 좋은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되어, 그동안에 지쳤던 온몸과 마음이 새 힘을 얻게 되었고, 사역에 대한 불안한 마음들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의 사역 가운데는 여러분의 기도와 헌신, 그리고 중보기도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되었고, 이제는 저희들이 돌아가서 더욱 힘있게 복음 전하는 사역을 감당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몽골 - 자르갈 사역자

안녕하십니까! 먼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한규삼 담임목사님 이하 선교위원회 그리고 총현교회 온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한국에 너무나 오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이 저에게는 고향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돌아 가셨지만 박정혜 어머니가 사시던 곳이 너무나 그리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제가 신학을 할 수 있었던 것도 한국의 어머니가 계셨기 때문이었고, 어머니의 기도와 헌신이 아니었다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아무런 꿈과 희망이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갔을 것입니다. 또한 총현교회가, 교구가, 전도회가, 그리고 단기선교팀이 인도네시아를 품고 기도와 후원으로 힘을 주셔서 저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가난한 아이들은 뽀뽀받듯 축복의 집을 통해 학교를 보낼 수 있었고 무슬림 리더들과 관계를 가지며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무슬림 지역에서 어떠한 핍박과 어려움이 닥쳐와도 계속해서 믿음의 유산,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전할 수 있게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번 선교대회 기간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총현교회 온 성도님들의 기도와 후원, 이렇게 큰 사랑을 받을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아마도 저 외에 다른 현지인 사역자들도 같은 마음이라 생각됩니다. 여러분의 사랑 깊이 간직하고 선교지로 돌아가 다시 한번 굳게 마음먹고, 이곳에서 느끼고 받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위해 기도해주시고, 기도로 후원해 주신 성도님들 정말정말 사랑을 전하며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은 선교 또한 많이들 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인도네시아 - 뿌지 전도사

사랑하는 선교 위원회 모든 식구들과 현지 선교사님들에게 정말 큰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선교 대회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느끼며, 준비와 기도의 노력들이 모든 것이 완벽하게 되어 있어서 많은 감동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는 이번 행사에서 경험한 모든 것들이 잊을 수 없는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선교 대회 기간동안 참여 했던 예배와 여행과 강의는 감동적인 순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섬기시는 분들과 함께 교제를 나눌 수 있어서 정말 기뻐했습니다. 또한 다른 현지 사역자분들의 발표와 사역 보고를 통해서 인상 깊고 감동적인 감명을 받으며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번 선교 대회를 통해서 새로운 형제 자매들을 만나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식구가 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이번 선교 대회 때 받은 사랑과 말씀과 은혜는 큰 동기부여가 되며 선교 현장에서 더욱 사역을 열심히 하도록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모든 우리 총현교회와 성도들과 현지 사역자님들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기도합니다. 사랑합니다! Yellow blue bus! Я люблю вас! 감사합니다! 송요한 선교사 올림!

미국 - 송요한 목사

안녕하십니까? 베트남에서 온 현지 사역자 웅 목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한량없는 사랑으로 지난 2023년 4월 13일부터 4월 19일에 베트남을 대표하여 한국에 와서 총현교회 설립 70주년 기념 선교대회에 참석하게 되어서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선한 계획 가운데서 총현교회를 알게 하시고 현지 사역자로 섬기게 하시며 그리하여 이번 선교대회에 참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첫날에, 현지 사역자 환영 감사예배 때 열방에서 오신 선교사님들과 같이 예배하니 참으로 이 땅에서 천국의 맛을 보게 된 것 같습니다. 특별히 4월16일 주일은 선교주일로 전교인이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각 나라에서 활동하시는 선교사님을 향한 관심과 아낌없는 환영을 받아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선교대회를 진행하는 동안에 한규삼 목사님께서 선교특강의 말씀을 통하여서 모든 현지 사역자에게 큰 위로와 힘을 가져다주셨던 것 같습니다. 총현교회 선교대회에 참여하면서 양화진 선교사 묘원 탐방, 기독교 학교 방문, 성경 전래지 등을 다양하고 보람이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 흑암의 권세가 가득한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절실히 느끼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선교대회의 많은 활동 가운데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본당 앞에 설치한 국가별 부스를 통해서 총현 성도님들을 만나서 각 현지 사역자의 사역 소식과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저는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마치 한 가정에 있는 식구처럼 느껴졌습니다. 선교대회에 참석하기 전에는 이토록 많은 은혜와 감동을 받을 줄은 전혀 기대하지 못했습니다. 뒤돌아보니 선교대회를 준비하기 위해 보이지 않은 곳에서 수고하고 섬겨주신 우리 총현 식구들 뿐만 아니라 목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의 섬김의 모습은 그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번 총현교회 70주년 선교대회를 통해 다른 국가에서 오신 선교사님들의 사역 소개도 듣고 총현교회에서 받은 사랑과 선교에 많은 기도와 응원이 저에게 큰 원동력이 되어, 큰 도전이 되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총현교회 설립 70주년 기념 선교대회를 축하드리며 이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며 잘 마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 감사의 글을 올려드립니다.

베트남 - 웅 목사



2023년 외선부 의료선교의 날 행사 후기

총현교회 국내 외국인 선교부(이하 외선부)에서 매년 '의료선교의 날'로 국내 외국인을 초대하는데, 올해는 교회설립 70주년기념 선교대회의 일환으로 선교 주일인 "4월 16일(주일)"에 개최되었습니다. 참여한 외국인 지체들과 함께한 의료진이 행사에 참여한 모습과 느낀 점을 교회와 함께 나누어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외선부 성도들의 건강을 위해 해마다 의료선교 행사를 해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총현교회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팀장님 외선부 책임 맡은 분들께 감사합니다. 우리 외선부가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방 안을 채워 주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중국팀 이순자 자매

의료선교의 날 행사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별도로 시간을 내어 의료 진료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저희 같은 외국인들에게는 많은 도움이 되는 매우 중요한 행사라고 느꼈습니다. 이런 행사를 마련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스리랑카 다누스꺼 형제

오늘은 저희한테 건강 검사를 테스트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병원에서 검사 받으려면 부담이 많이 될 텐데 무료로 진료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God bless the Church and use you all the way you can.

미얀마팀 사라 자매

총현교회 70주년 기념 외선부 의료선교의 날에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외국인 성도들이 진료도 받고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찬양도 부르고 아주 기쁨이 넘치는 날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자랑스럽고 우리 교회도 자랑스럽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외선부를 섬기는 선생님들, 의료팀 선생님들 고맙습니다.

몽골팀 아기 자매



기도와 은혜로 준비한 의료선교주일 아침! 제2교육관 외선부 예배실이 다른 주일보다 더 넓어보였습니다. 멀리서 오서 함께하신 현지 선교사님들의 감사 인사가 끝날 무렵까지도 예배실은 허전하리만치 비어있었지요. 그러나 목사님의 말씀이 시작될 무렵부터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닌 뭉게구름처럼 외국인 친구들이 예배당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셨습니다. 보내주시는 진료 의사 선생님 앞에서 아픈 몸의 상태를 설명하는 외국인 친구들의 모습은 마치 예수님 앞에 선 어린아이들처럼 맑아 보였습니다.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와 공활하심이 차고 넘치는 시간이었습니다.

네팔팀 최정희 순장

네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잠 3:27)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잘 새겨놓으며, 누군가에게는 작은 것 같지만 나에게는 중요하고 소중한 것을 나누는 훈련을 하며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의료선교의 날을 통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도움이 필요한 자가 스스로 발걸음을 옮겨 교회 안으로 오게 인도해주신다니, 하나님의 은혜는 참 넓고 인격적이다. 이렇게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우리는 그들의 필요를 정말 채워줬을까 다시 한번 돌아보며.. 더욱 베풀기를 아끼지 않는 총현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한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처럼..

청년2부 원혜연 자매

충현교회 설립 70주년 5월 6일(토) 독서감상문 글짓기 & 그림 그리기 대회

1. 독서감상문대회

- 참가대상 :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 감상문 분량 : 예꿈도서관 내 신앙서적/ A4 한 장 내외 (당일 시행)
 - 유년부: 닉 아저씨처럼 기도해보(출판사: 두란노Kidz)
 - 초등부: 베퍼1, 2 (출판사: 몽당연필)
 - 중고등부: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출판사: IVP)

2. 글짓기대회 (시, 산문)

- 주제 : 충현교회 설립 70주년을 맞이하면서
- 작품제목 : 신앙생활에 관련 자유롭게 정함
- 참가대상 :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 글짓기, 시 분량 : A4 한 장 내외 (당일 시행)

3. 그림그리기대회

- 참가대상 : 유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 그림 규격 및 양식 : 8절 캔트지 70년 운영위원회 제공
- 개별준비 : 그림도구, 크레파스, 물감, 붓, 판넬, 돗자리 등
- 접수기간 : 2023년 4월 9일-4월 30일
- 접수방법 : 제1교육관 602호 예꿈교사실 (최향숙, 전해숙)
- 개최일시 : 5월 6일 (토) 10:00-14:00 (예꿈교사실 602호)
- 장소 : 제1교육관 6층 502호 하늘정원, 본당 앞, 교회 뜰
- 심사기준 : 신앙관, 표현력, 조화력, 창의성, 노력도
- 심사결과발표 : 2023년 5월 14일 주간충현
 - 참가 어린이에게는 빵과 음료제공 -
- 시상내역 : 대상 10명, 최우수상 10명, 우수상 20명, 장려상 30명
- 문의 : 예꿈 양육부 김동석 집사(010 3209 5131)

※ 각 부서에 원하는 대회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충현교회 설립 70주년 기념 찬양제 충현 찬양페스티벌

충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연결하는 찬양 축제!
찬양에 은사와 열정을 가진 충현인들의 많은 참가를 기대합니다!

- 참가자격**
- 충현교회 등록교인 이상
 -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열정이 있는 성도 (인원, 연령 무관)
- 참가곡**
- 5분 내외의 찬양
(장르 무관, 반주는 참가팀 준비)
- 신청기한**
- 2023년 5월 28일 (주일)
- 일정**
- 예선 6월 11일 ~ 6월 25일
본선 7월 21일 (금) / 최종 8팀

상금 1등 100만원, 총 300만원

신청방법



QR 코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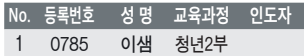
문의 박요셉 목사 010-2516-7414
김상열 장로 010-6214-7237



장 소: 갈릴리홀

제출장소: 감사위원회 701호(동쪽 엘리베이터 사용)

신청: QR코드를 통해 신청서 작성 후 담당 교역자에게 신청 문자 보내면 됩니다.



1. 닉컬러스 성도, 김혜원 성도(4교구) / 출산, 딸, 4월 22일

1. 박정훈 군(박민호 집사·정혜진 권사의 아들, 10교구)과 윤혜성 양(고 윤기영 씨·심순자 씨의 딸) / 5월 5일(금) 11:00 상록아트홀 1층 그랜드볼룸

2. 이용길 군(이금관 씨·김영자 씨의 아들, 에바다부)과 김보연 양(에바다부) / 5월 6일(토) 12:00 천천교회 제1교육관 501호

1. 차관관 성도(노희진 집사의 모친·김순례 집사의 시모, 11교구), (송복임 권사의 시모, 1교구)/23일 별세, 25일 장례

날 짜	예 배	설교	사회	기 도
5/3	수요 I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 (느 2:1-10) 임대영 목사	권혁근	조연숙
5/5	금요일집회	하나님이 간과하신 것 (롬 3:23-26) 한규삼 담임목사	박요셉	
5/7 제4차 성찬식 어린이주일	주일 I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아 2:15) 한규삼 담임목사	임대영	남용승
	주일 II		이성환	최현구
	주일 III		이기영	조윤준
	주일찬양	어린이와 같이 (막 10:13-16) 박영환 목사	신경철	김성수

날짜	설교자/기도자	설교본문	주력교구
1 (월)	윤성복/김주현	민 21:1-20	9교구
2 (화)	한규삼/이경환	민 21:21-35	전교인
3 (수)	이다현/권영일	민 22:1-20	전교인
4 (목)	윤준식/송현덕	민 22:21-35	5교구
5 (금)	이기영/노규식	민 22:36-23:12	1교구
6 (토)	임진실/임진실	민 23:13-26	전교인
7 (주)	강성은/강성은	민 23:27-24:9	전교인

구분	시간	장소
주일예배	I 오전 9:00	본 당
	II (수어 예배, 영어, 일어, 중국어 동시통역) 오전 11:00	
	III 오후 1:00	
주일찬양예배	오후 3:30	본 당
수요예배	오전 11:00(본당)	
금요일집회	오후 7:30	본 당
새벽기도회	매일 오전 5:00	갈릴리홀

구분	시간	차량
화요일집회	오전 11:00	①호차 9:50 본당 앞 출발(지행) ②호차 9:40 감실역 3번출구, 10:20 아담역 2번출구 BYC 앞

* 금주 기도원 봉사: 5교구

구분	시간	장소
영아부	10:50~12:00	바나비홀(제1교 103호)
유아부	10:50~12:00	마테홀(제1교 201호)
유치부	10:50~12:00	마가홀(제1교 202호)
유년부	10:50~12:00	바울홀(제1교 301호)
초등부	10:45~11:30	디모데홀(제1교 304호)
중등부	10:45~11:45	빌레몬홀(제1교 404호)
고등부	10:45~11:40	베드로홀(제1교 504호)
청년 1부	14:00~15:30	에스라홀(제3교 B201호)
청년 2부	14:00~15:20	한나홀(제2교 402호)
브릿지공동체	14:00~15:30	사무엘홀(제2교 204호)
청년 3부	12:30~13:50	누가홀(제1교 204호)
신혼가정부	12:30~13:30	두란노홀(제1교 102호)
12교구(그루터기/공동체)	13:00~13:50	야고보홀(제1교 501호)
에바디부	12:40~13:40	여호수아홀 (제2교 301호)

구분	시간	장소
사랑부	10:45~11:50 (성인)	사무엘홀(제2교 204호)
	11:00~1200 (아동, 청소년)	
성경아카데미	12:20~13:30(에스라)	디도홀(제1교 401호)
	12:40~13:40(아블로)	디모테홀(제1교 304호)
소망부	12:15~13:30	갈릴리홀
새가족기본과정부	오후 12:10	베다니홀
새가족양육부	오후 12:10	엠마오홀
11교구(새가족)	오후 12:10	느헤미야홀(제3교 101호)
어와나부	1910~2150(금요일집회시)	제2교육관 4층
예금 양육부	(주)12:00~14:45	예금돌봄교실(제교 601호)
		예금돌봄교실(제교 701호)
		예금교실(제교 702호)
국내외국민선교부	11:00~12:10	여호수아홀(제2교 301호)
총현어린이집	주간교육	제2교육관 1층
발달장애인교육	주간교육	총현복지관
총현평생대학원	(목) 오전 11:00	갈릴리홀

※ 각 부서별 예배전 찬양과 예배후 반별 GBS등의 별도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 규 삼 담임목사

임창식 신광철 이상석 오순도 양기수
전도위원 총현동산이사장 당회서기 소망부장 총현복지재단이사장

김태식 이성섭 이보신 이상해 김성호

9교구장 동산부장 인사위원 기도원부장 중보기도부장

조증민 이상복 지규성 김영주 최민석

봉사위원 교구위원장 선교위원장 전도위원 할렐루아찬양대장

김명성 이창희 백봉선 박재현 임광신

차량안내부장 총현복지재단상임이사 재정위원장 행정위원 예비위원장

이흥기 송하천 조유준 최현구 남용승

감사위원장 5교구장 세움위원장 인사위원 인사위원

김영화 변창대 허마선 안역식 허주봉

전도위원장 당회부서기 찬양위원장 10교구장 봉사위원장

양효민 박원화 이상배 박명근 김종후

행정위원장 성례부장 기획위원장 8교구장 새가족위원장

송영상 전성욱 박건일 배종락 김철남

성경통독부장 아멘찬양대장 4교구장 건축위원장 예루살렘찬양대장

김희동 홍금성 강태영 장기랍 홍수길

3교구장 교육위원장 외선부장 베엘찬양대장 2교구장

정인욱 남중호 유승규 김상열 이경화

기획위원 차세대위원장 1교구장 임마누엘찬양대장 6교구장

이양선 박성철 김열화 김세죽 하홍연

7교구장 11교구장 예배부장 선교위원 헌금부장

최규옥 최승민 이석재 송문식 문영규

예배위원 제자교육훈련부장 평생대학원장 안내부장 12교구장

김충식 신현욱 임병익 박노익

이기영 1교구	강성은 선교위원회	김주한 11교구	이성환 12교구	권혁근 7교구
윤성복 9교구	박동진 2교구	문진호 8교구	정석훈 김유석	에디마루
김상래 보릿지	전영재 10교구	박영환 6교구	위만복 4교구	윤종식
임대영 고등부	신경철 초등부	임진실 사랑부	김승래 신혼가정부	배진현 유지
박성덕 창선2	권순동 천치부	박오섭 창원3	이다현 중등부	

송진경 5교구	주은숙 6교구	이수경 평생대학원	이정은 11교구	홍명주 9교구
유현정 유년부	조기숙 7교구	여정광 8교구		

■ 교육전도사 김희영 유아부 이영미 유치부

최동현

■ 현지사역자 송요한 자르갈 사란자야 라우단다쉬
베 웅 스테판 파우크 뿌지 쿤치이시
윤시안 장지축 조여인 말릭 스텔라

박태연 안석렬 유재훈 유창무 장수진
정은희 허요셉 홍정화